

최고지도자 인문학과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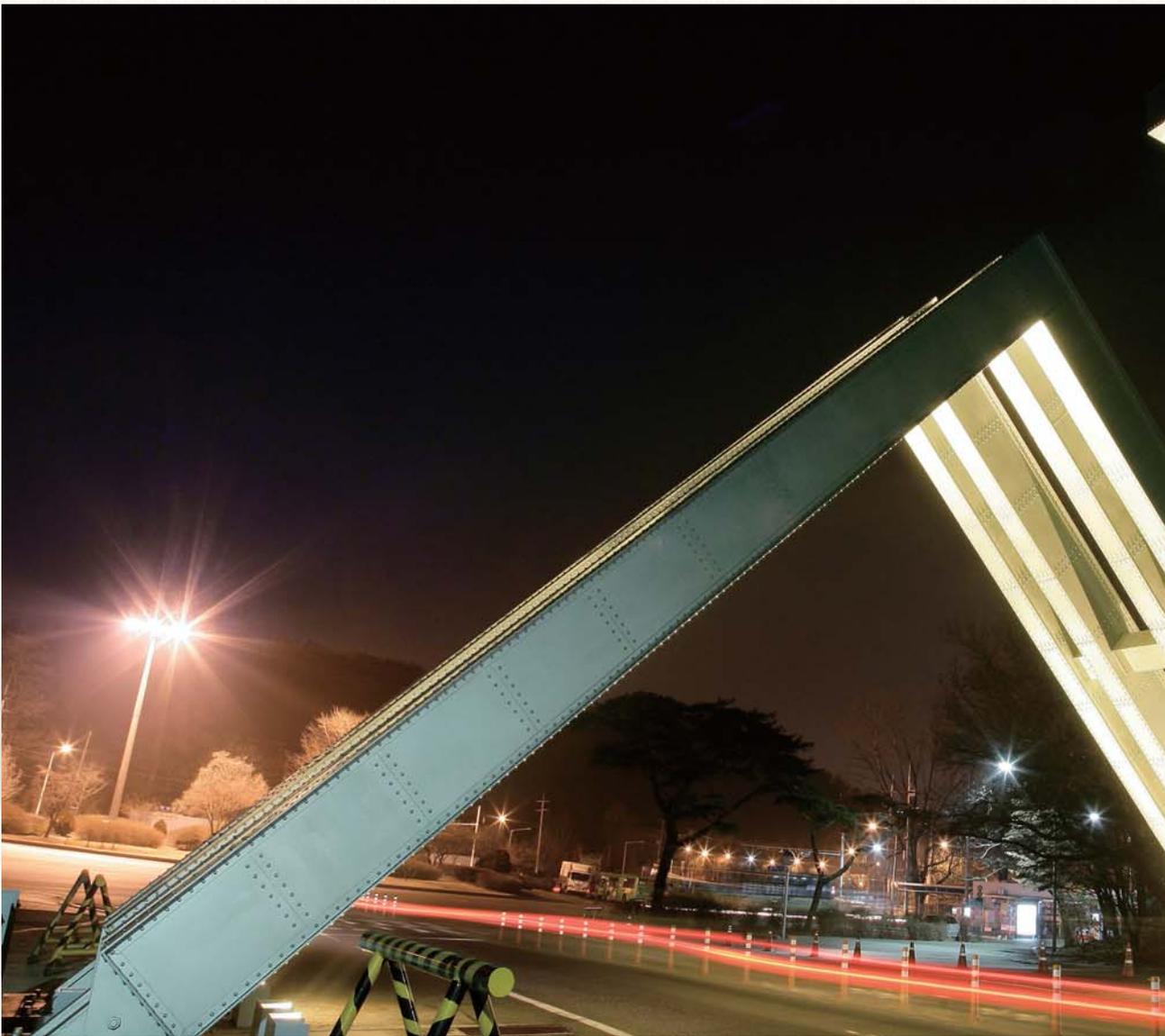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AD FONTES PROGRAM



AFP 최고지도자과정

CONTENTS

- 02 제13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 04 아드폰테스 (Ad Fontes)
- 05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개요
- 06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프로그램
- 08 인문학의 향연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 10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추천의 글
- 12 수업안내
- 13 입학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AD FONTES PROGRAM



**제13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열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배 영 수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성찰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탐구하며 거기서 형성되는 인간 관계를 고찰하면서, 인간과 인생을 넓은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흔히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수행되지만, 이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사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전파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발전은 물론이요 그에 수반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패턴의 변형도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높은 자살률과 끔찍한 범죄에서 드러나듯이, 가치관의 혼란을 비롯해 심각한 부작용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것은 물론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결국 우리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인간과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문대학은 무엇보다 근원에 주목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는 한국인에게만 주어진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대화를 겪은 다른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과제는 인류의 역사라는 넓은 맥락과 긴 안목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그런 과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해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동서 고금을 통해 널리 읽히는 고전을 비롯해 인류의 역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인물과 저술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인문대학은 최고지도자 과정을 Ad fontes, 즉 “원천으로” 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제13기 수강생 여러분은 앞으로 18주 동안 “원천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과 저술을 중심으로 삶에 관한 근원적인 주제를 놓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그런 주제를 천착해온 권위자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탐구를 도울 것입니다. 인문학 여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드폰테스 (AD Fontes)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지상주의의 그늘 속에서 한때 인문학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는 무관한 비실용적 학문으로 간주되고 외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사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날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CEO들과 많은 대중들의 관심은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의 필요성 및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지혜, 통찰력,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이끌어 갈 최고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장차 우리 사회 각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9월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은 본 과정에 참여한 이전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언론 등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 월등한 차별성과 수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제공하는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 사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에너지와 비전,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문대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13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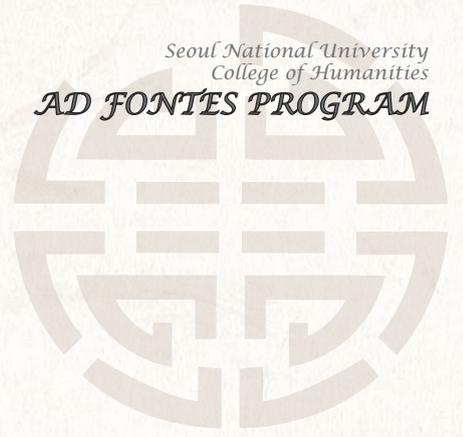
교육목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적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 성찰 능력과 윤리 정신, 다문화적 감수성과 포용력을 함양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교과과정 지성과 감성을 가진 인간성의 다양한 국면들에 대한 이해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향수 배양
사회적 가치와 내면적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문화 변동과 미래 사회에 대한 거시적 통찰

주임교수단 주임교수 : 배영수(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부주임교수 : 김기현(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이창숙(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프로그램**

8월 27일	입학식	
9월 3일	선비정신과 뉴리더십 세종과 훈민정음	한영우(서울대 국사학과) 황선엽(서울대 국어국문학과)
9월 10일	몽골제국과 세계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16세기 일본사회	김호동(서울대 동양사학과) 박수철(서울대 동양사학과)
9월 24일	교내탐방 창조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권영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0월 1일	조선시대 양반의 경제활동 원효와 한국불교	김건태(서울대 국사학과) 남동신(서울대 국사학과)
10월 5일(토) -10월 6일(일)	안동 학술 기행	
10월 8일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나타난 한 남자의 일생과 사랑 문명과 텍스트 5 : 16억 인구의 정신 세계, <꾸란>	이미숙(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배철현(서울대 종교학과)
10월 15일	인식론의 문제 : 발견된 세계, 발명된 세계 바이올린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김기현(서울대 철학과) 백주영(서울대 기악과)
10월 22일	열하일기 건륭제와 열하	조현설(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구범진(서울대 동양사학과)
10월 25일(금) -10월 27일(일)	중국 학술 기행	



11월 5일	이천년을 함께한 비단실의 소리 - 가야금 소동파의 삶과 문학	이지영(서울대 국악과) 류종목(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1월 12일	한국의 종교문화 카프카와 꿈의 세계	최종성(서울대 종교학과) 김태환(서울대 독어독문학과)
11월 19일	미학의 이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서양중세철학	이해완(서울대 미학과) 강상진(서울대 철학과)
11월 26일	인간, 선과 악 사이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중국으로 간 까닭은?	백종현(서울대 철학과) 민은경(서울대 영어영문학과)
12월 3일	전체기수합동수업 베이비부머의 슬픈노래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12월 10일	시와 자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이건우(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김창민(서울대 서어서문학과)
12월 17일	도덕경 놀이와 노래	최진석(서강대 철학과) 이창숙(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2월 23일(월)	아름다움과 에로스, 플라톤의 『향연』 읽기	이태수(서울대 철학과)
1월 7일	보고서발표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배영수(서울대 서양사학과)
1월 14일	수료식	

인문학의 향연을 이끄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Soul-searching through humanities

Popularity of the liberal arts drives people and businesses to return to classic books and attend related classes



Participants of Seoul National College of Humanities' Ad Fontes Program hold up their textbooks during a class on Tuesday. (Park Hyun-koo / The Korea Herald)

Every Tuesday, a group of corporate executives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ttend a lecture on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gram, named “Ad Fontes,” a Latin expression meaning “to the sources,” challenges the students in their 50s and 60s with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The students have to tackle the fundamental issues surrounding historic figures and influential books while absorbing knowledge from a diverse spectrum of studies from Oriental philosophy to literature.

The first hour of the lecture on May 21 was led by Kim Jin-yup, an aesthetics professor at SNU, who explained how art can heal psychological trauma. The professor introduced Sigmund Freud’s psychoanalysis of two artworks by Leonardo da Vinci, “The Mona Lisa” and “Virgin and Child with St. Anne,” in connection with the artist’s childhood memories.



Students listen to a lecture on evolutionary psych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Hyun-koo / The Korea Herald)

Not a single phone call was made during the lecture. Absentees are rare.

“Many of us have been living in a harsh working environment and fierce competition. But now I enjoy emotional well-being and regain my composure by learning about humanities, which have long been forgotten in my life,” said Kim Young-chul,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of Hana Bank and one of the 43 participants of the program.

Bae Young-soo, dean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t SNU, said he used to be skeptical about opening such a course. The popularity of books and television shows on humanities also seemed to be a passing fad, he said.

“I think this trend may signify a huge turning point in society as I found out that many students attending this course are eager to resolve serious concerns through self-reflection as they dig into the study of humanities.”

However, the dean said that the popularity cannot be considered a revival of broader humanities in Korea. “I would rather say it is a rebirth of public interest in the humanities.”

Park Han-na, 2013-5-24 The Korea Herald



‘Humanities essential education for all’

Universities, public libraries at the forefront of humanities programs



Participants of Seoul National College of Humanities' Ad Fontes Program hold up their textbooks during a class on Tuesday.
(Park Hyun-koo / The Korea Herald)

Time-honored humanities subjects such as literature, philosophy and history have struggled to draw students in recent years, but it's not all doom and gloom.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libraries are propping up the subjects with new, ambitious programs.

The renewed enthusiasm for humanities at colleges and public libraries reflects the desire of the public for a deeper knowledge of the subjects, experts said.

“People began to ponder the meaning of the capitalist ideology in the late 1990s,” said Bae Young-soo, Dean of Colleg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n interview. Despite -- or because of --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people found it hard to answer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what should be done beyo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is gap is now fueling the drive for humanities in several academic and private sectors, Bae said.

Another element that is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the humanities, Bae said, is the need to acquire creativity and fresh knowledge.

“Korea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partly due to the ready-made technologies imported from developed nations in the past. The country is now required to develop its own technologies based on creativity, and studying humanities can help nurture creativity,” he said.

Bae is himself spearheading the humanities initiative as the chief of SNU College of Humanities, which has been running a special program titled “SNU Humanities Course” since 2010.

The monthly open lecture series offers various subtopics of humanities ranging from Confucian philosophy to aesthetics. Topics are chosen to

directly relate to their own majors. The lectures are later compiled and published as a book. The lecture series also provides a mini debate session at the end, featuring professors and experts in humanities fields.

“Unlike other typical humanities-relevant events, the lecturers (in the SNU Humanities Course) give a speech according to their own in-depth research,” said Kim Hyeon-kyun, a professor at SNU.

“The debate session in the lecture provides the general public in the audience with cutting-edge insights about the topic, and motivates them to be more focused during the lecture and gain knowledge.”

The SNU programs have been well-received so far, attracting more than 1,000 participants per session. The next session is scheduled for June 13.

Ahn Hoon, 2013-5-24 The Korea Herald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추천의 글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장관

뒤늦게 예수넘어 주위의 권유로 참여한 AFP 1기 과정에서의 인문학 공부가 경제분야에서 살아온 나의 삶을 확 바꿔놓았다. 수료 후, 4년째 안동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선현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심어주려고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있으니 말이다.

윤재운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인문학적 시각이야말로 역동적인 재판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재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와 판단이 필수적이다. 나는 오늘 저녁 과거 르네상스의 인문학자인 마키아벨리가 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서재에서 인문학을 벗하고자 한다.

김형오 국회의원, 前 국회의장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인들도 인문학에 허기와 갈증을 느껴야 한다. 인문학의 식탁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인문학의 샘터에서 메마른 목을 축여야 한다....이제 나는 가을 산의 오솔길을 걷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에 오크통 속에서 오래 숙성시킨 와인의 향기로움 까지 더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하영봉 LG상사 대표이사 사장

치열한 경쟁과 메마른 사업환경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문학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풍요와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가던 사업현장에서도 인간의 본성,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거란 생각과 더불어 본과정을 많은 기업인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삶은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강사진의 강의와 현지답사를 통해 체득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구상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많은 최고지도자분들께 추천합니다.

 **이경현 (주)마크마운트 대표이사 회장**

100m 스프린터들의 화려함보다 42.195Km를 끊임없이 달리는 미련스러움이 더 감동을 주듯, AFP는 스피드 경쟁에 지쳐 화려함 뒤에 허탈해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게 하며,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묵묵히 생각해 합니다. AFP에는 여백이 있고 우직한 벼이 있고 그러면서도 새로움에 대한 폭발력이 내재되어 있어 참 좋습니다.

 **강호문 (주)삼성전자 부회장**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삶의 특별한 이야기들 속에서 인문학의 깊은 매력이 느껴집니다. “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 故曰教學相長也”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는 禮記에 나오는 문구가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목표 달성에만 매여 있던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본 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 거칠어 진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은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면무도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 따뜻하면서도 인정 넘치며 마음 편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인문학 과정을 추천합니다.

 **문인식 바바패션 회장**

경영인으로서 변화와 혁신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그 무엇을 찾지 못해 늘 안타까워 했었다. 그 답은 바로 내 옆에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문학은 언어의 공장, 역사는 경험의 공장, 철학은 초월의 공장이라 한다.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인들이 역사를 통해 지혜를, 철학을 통해 논리를, 문학을 통해 창의성을 얻어 가시길 추천한다.

수업 안내

- 교육기간** 2013년 8월 27일(화) ~ 2014년 1월 14일(화)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 ~ 21:40(1일 2강좌)
국내 워크숍(1박2일) 1회, 해외 워크숍(2박3일) 1회
-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8동 두산인문관 원형회의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8동 605호



AFP관련 문의처

- 전화** 02)880-2570 **팩스** 02)871-0064
- 홈페이지** www.snuafp.com
- 주소** (151-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 213호
최고지도자인문학과과정 사무국

입학 안내

- **모집인원** 45명 내외
- **입학자격** 인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사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공사기업체 CEO (회장·사장·임원)
 - 정부 고위 공무원 / 부장급 이상 판·검사 / 국회의원 / 장성급 장교
 - 교수 / 금융인 / 언론인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 **이수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 기말보고서(에세이)
- **모집기간** 2013년 7월 8일(월) ~ 2013년 8월 2일(금) 18:00
- **제출서류**
 - 1) 온라인 지원서(AFP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 2)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 3) 증명사진(반명함판 규격, 150Kb 이상의 JPG또는 PNG파일)
 - 4) 자기소개서 또는 기관(회사) 안내 자료
 - 5) 최근 2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5)는 중소기업 혹은 비상장 기업에 해당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지원접수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 ▶ 홈페이지: www.snuafp.com
 -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 가능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 213호
이메일: apply@snuafp.com (AFP사무국 입학전형 담당자)
- **합격자발표** 2013년 8월 8일(목) 홈페이지 공지
- **등록기간** 2013년 8월 9일(금) ~ 8월 23일(금)